

대학과 대학인의 새로운 자리매김

최운실 아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1. 대학가에 울리는 변화의 서곡

이른바 세 천년 뉴밀레니엄 시대의 서곡이 120여 일 후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한다. 대학과 대학인들에게도 예외없이 세 천년의 '교육 서곡'은 울리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에 대한 준비일런지... 우리의 교육계는 최근 생존을 위해 그야말로 발빠른 변신과 새로움으로 엄청난 중무장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2002년의 새 대입제도와 대학평가인정제, 대학의 구조변혁과 새롭게 거듭나기, 세학교문화창조, 세교육공동체 운동, 새로운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 교육계 전반의 '새로움'이라는 명제가 함유된 신조류들이 그러하다. 이쯤 해서 대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본다. 무엇이 과연 '새로운 대학'인가? 누가 과연 세 시대를 응전할 '새로운 대학인'인가?

2. 이끌려 가는 대학과 이끌어 가는 대학 - 새로운 대학의 진상 : 그 실상과 허상 -

분명 새로운 대학은 단순한 외형상의 변화와 성장을 넘어서는 꺾이기 이상의 변신을 요구할 것이다. 대학의

이름을 새롭게 명명하고, 교사 건물을 새로 짓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빈터 옆집들을 사서 새로운 센터를 만들고, 웅장한 대학 상징의 대리석 휘장으로 화려한 변신의 데코레이션을 하고, 최첨단의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교육 기자재를 설치 운용하고, 대학의 고정자산과 수익용자산이 전보다 새롭게 증식되면 그것이 새로운 대학일까? 답은 분명 '아니다' 일 것이다. 아니면 최근 교육부와 대학 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각 당해 연도 대학개혁평가에서 개혁 성공 대학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받고 높은 서열을 차지하며 그에 연동한 교육개혁 지원 포상금을 후하게 받으면 그것이 참으로 새로운 대학인가? 그 또한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대학이 참으로 '새로운 대학'일까? 어떤 대학이 과연 세 천년의 서곡을 맞을 무렵, 변화된 사회의 변화된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당혹해 하지 않고 무서운 신시대적 성장 저력을 보유한 준비된 대학으로 여유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대학개혁을 논함에 있어 흔히 '대학의 특화와 다양화, 자율화, 개성화'라는 명제들이 대두됨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새로운 대학의 자리매김을 위한 담론에 있어 우선적인 쟁점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들은 새로운

대학이 지향해야 할 자리매김의 향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학에는 더 이상 표리부동한 허상으로서의 총론적 철학과 이념이 아닌 생생하게 실체적 이념으로 표출된 대학 고유의 독특한 철학과 교육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한다. 19세기적인 천편일률적 백화점식 대학 이념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그릇으로 새롭게 담아 내져야 한다. 이러한 이념들로는 더 이상 새로운 대학으로 변신하는 방향타를 잡기 어렵다. 항해사와 방향타가 과거지향인 배로는 미래지향의 새로운 조류를 타는 항해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계만 있으면 얼마든지 척척 끝없이 똑같은 형을 찍어 낼 수 있는 모방복제형의 국화빵형 대학으로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대학들은 여전히 전 단계인 19세기형 교육이념의 보호막 속에서 안주하며 여전히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담보하고 있는 듯하다. 아니면 외형상의 표피적인 개혁과 진보를 외칠 뿐 아예 이를 위한 준비일량 관심조차 없는 듯 싶다. 여전히 우리의 대학이념들은 '홍익인간'과 '전인교육', '진선미교육', '자주와 창조' 등과 같은 커다란 틀의 교육이념 표상 속에 안주하고 있다. 이들을 그 다음 단계의 한 단계 진일보한 실체적인 대학의 철학과 이념으로 연결시키고 있지 못하다. 지식 강국의 초석이라는 국가적 대명제 하에 인성교육과 전문교육과 국제화교육과 정보화교육 등으로 대학의 이념과 교육목적들이 다소의 표현상의 가감승제만을 거친 채 천편일률적으로 의미 없이 나열되고 있을 뿐이다.

새로운 대학을 위한 새로운 자리매김의 첫 번째 명제는 각 대학 고유의 교육적 체색화와 개성화를 위한 방향잡이 설정 작업이 되어야 한다. 목적이 없이 가는 배는 아무리 빨리 항해해도 결국 남보다 늦게 목적지에 회항해 오거나 아예 목적지에 귀착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마련이다. 우리 대학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교육적 방향타를

명확하게 잡는 일이 우선해야 한다. 지향하고자 하는 길러 내고자 하는 교육의 이념적 표상과 정신이 독특한 고유의 색깔로 선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슴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느껴지는 그러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늘 떠오르는 극히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대학의 이념이나 규범적인 대학 교육목적의 나열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이들 상위의 이념들을 조리하고 담아 낼 그릇으로서의 앞접시가 필요하다. 준비된 재료들로 멋진 요리를 만들어 각 대학이라는 앞접시에 맛깔스럽게 담아 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제 각 대학들은 그들만의 정신과 교육의 열과 문화로 상위의 대학 교육이념들을 한 단계 더 구체화시키고 한 단계 더 가시화시키고 한 단계 더 개성화시키는 작업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방향타의 설정 작업은 이제 몇몇의 이른바 세칭 일류 대학들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 늘 이끌려 다니며 남의 것을 모방·복제·재생하는 대학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화된 교육의 색깔과 주형(主型)을 지니고 각자의 영역에서 교육을 이끌어 가는 진정한 분야별 일등주의 선도 대학으로 모든 대학이 다시금 거듭나야 한다.

3. 대학의 성장잠재력 진단과 처방 특화 전략

방향타가 서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대학들은 새로운 자리매김의 두 번째 작업에 나서야 한다. 이는 바로 각 대학들의 성장잠재력에 기초한 교육력 특화와 거품빼기 작업이다. 정확한 진단은 이미 절반 이상의 처방을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대학의 자가진단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자체평가서만으로 우리 대학의 참 모습이 참 위상이, 진정한 성장잠재력이 모두 진단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제 내면의 충실지수를 보자. 형식적 잣대에 맞

준. 어찌 보면 짜맞추기식의 그런 평가만으로는 어렵다. 진정한 내면을 곰곰이 따져 우리의 실상과 허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그럼으로써 우리의 대학이 진정 어디가 풀었는지, 어디가 썩었는지 그 환부를 찾아 내어 도려 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무슨 병원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했기에 그런 병을 얻었는지, 그 바이러스는 어떤 약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원인을 찾아내 치유하는 근원적 치유가 필요하다. 단기 안목적이고 타인 지향적인 외형적·표피적 판단으로는 결코 대학의 성장잠재력과 특화를 위한 자생력 진단이 어렵다.

“... 당신의 대학은 어떠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계십니까? 오랜 명성과 전통으로 빛나는 대학 문화와 선후배 인맥군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학의 특성이 잘 담겨진 독특한 방향잡이 교육이념과 철학이 철저하게 살아 숨쉬는 대학입니까? 몇몇의 ABC 분야 만큼은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우수한 학생 자원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각 분야의 기라성 같은 석학 '교수요원' 인재군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혹여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는 엄청난 대학발전 고정자산과 수익용 자산을 통한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최첨단의 교육용 멀티미디어 기자재와 개발된 특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대학들은 이를 위한 철저한 자체 진단과 자가 모니터링 점검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 대학의 강점과 취약점을 명확하게 스스로 잡아 내야 한다. 강점은 부각시켜 키워 나가고 약점은 수정·보완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강점으로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예로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EMBI 특성화 정책' 사례가 문득 떠오른다. 이 대학의 경우 스스로 대학의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진단한 결과, 아직은 대학에

대한 사회적 지명도와 네트워크가 취약하고 학생수가 적은 중소규모 대학으로서, 대학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일천하여 사회진출 선배 인맥군 형성이 취약하고, 지리적 여건에 있어서도 대학의 메카 서울이 아닌 수도권 중소도시에 위치했다는 점 등이 진단되었다. 그러나 역으로 이러한 점은 대학개혁이 소형 군축함처럼 신속하게, 치밀하게 이루어지기 용이한 여건이어서 가시적 개혁 효과가 단기간 내에 가능할 수 있음이 분석되었고 개혁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정예화된 우수 교수진과 단결된 우수 학생자원이 뒷받침될 수 있으며 여기에 탄탄한 재원 투입 동원력을 지닌 대학 재단의 무서운 지원력이 가세될 수 있음이 분석되었다. 여기에 사력을 다하려는 구조변혁 견인차로서의 총장의 중횡무진한 다차원적 역할이 개혁 구심체로 작용할 수 있음이 동시에 포착되었다. 이러한 진단을 거쳐 이 대학은 학자 양성보다는 특정 중점분야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한다는 교육방침하에 주요 중심의 EMBI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EMBI란 대학이 처음 공학 단과대학으로 출발하였음에 기초한 기간학문의 성격을 지닌 엔지니어링의 E, 그리고 의과대학의 M, 경영학 비즈니스의 B, 국제학의 I의 머리글자를 따서 칭한 것으로 이들 분야에 주력하고 특성화 중점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방향을 잡고 정예화된 첨단교육으로 교육경쟁력의 승부수를 건다는 전략이었다. 아직 평가는 이르지만 현 단계에서 이 개혁 정책은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대학가에 회자되고 있는 듯하다. 비록 입학생 성적으로 표출된 것이기는 하나 상당히 우수한 학생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변화가 눈에 띈다. 학교에 대한 대외·대내적 평가와 신임도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진 듯하고 개혁 또한 지속적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례는 아마 철저한 나름대로의 진단과 그에 따른 대학의 특화 전략 수립 및 활로 모색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아탑으로서의 학자 양성이나 기존의 전통 있고 명망 있는 큰 대학들을 모방

한 대학발전 개혁전략만이 전부가 아니라 자체적인 특수 상황 여건과 특성 및 설립 취지에 맞는 나름대로의 대학 특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4. 새로운 대학의 리포지셔닝을 위하여: 신인재를 키우자

대학은 이제 변신해야 한다.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육 주체답게 달라져야 한다. 이쯤 해서 요즘 기업들의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리포지셔닝' 전략 강구가 새삼 눈에 띈다. 리포지셔닝이란 개념 그대로 새로운 자리와 역할과 기능에 걸맞게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변신의 전략일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학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위한 대학의 리포지셔닝 전략은 무엇일까? 몇 가지 떠오르는 단상들을 정리해 본다.

단상1. 대학의 '탈고정관념화'를 위한 생각의 틀 깨기

대학은 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꽤 보수적인 사회다. 개혁이나 변신을 달가워하지 않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 열린 사회라기 보다는 닫힌 사회의 속성이 비교적 강하다. 최고의 지성의 전당인 상아탑으로서의 아카데미즘 전통과 대학인들의 소수 정예적 선민의식과 엘리트 의식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나 오늘날과 같은 대중화되고 다양화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멀티버시티로서의 대학은 이제 과감한 변신과 탈고정관념의 수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열린 교육 마인드가 필요하다. 교육의 개념에서 교육의 시기, 교육의 대상, 교육의 방법, 교육내용, 교육접근 방식, 교육기관 등에 대한 탈고정관념의 열린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초·중등학교에서의 열린 학교수업에 국한되는 열린 교육 논쟁이 아니다. 이를 넘어선 광의의 열린 교육 마인드와 열린 교육 시스템이 필요

하다. 교육의 인프라를 열고 교육의 소프트웨어를 열며 교육의 휴먼웨어를 여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도 열림이 필요하다. 더 이상 대학생은 청년층의 고등학교를 갓 떠난 대상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생은 그야말로 평생학습시대에 걸맞게 청년층에서 성인과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가 확대되고 다양화되어야 한다. 교육의 개념과 기관 또한 정규의 학교만이 교육의 독점물이 아니라 모든 사회자원의 교육자원화가 필요하다. 이른바 전 사회의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은 단순한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으로 그치는 교육자원 연계망이 아니라 전 사회의 교육기관과 교육자원을 중첩으로 결집하는 교육망과 학습공동체의 심체로서 새로운 기능을 수임해야 한다.

멀티미디어에 의한 원격화상 온라인 교육으로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한 교육의 시·공간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형식적인 학교 공간에서 뿐 아니라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잠재적인 교육에 이르는 비형식과 무형식 교육으로까지 무한대적으로 확산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벽돌과 모르타르로 이루어진 학교를 넘어 벽없는 학교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써 학습권을 지니는 학습자에게로 교육의 중심점이 이동하고 있다. 시공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교육의 시대에는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교육과 학습에 접속될 수 있으며 누구나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가르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상호간에 배움을 주고 받는 쌍방향적인 교육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누구든지 자율적인 학습능력을 지니기만 했다면, 학습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교육에 참여하는 주체적인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수요원이 전처럼 주도적인 위치에서 수직적으로 암기 재생력을 전제로 노후를 전수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 학습과 교육의 공동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을 도와주는 방법지와 정보원지(Know-How와 Know-

Where)의 조력자와 안내자로 기능하게 된다. 교육방법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하이테크 교실에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도전적 교육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인쇄된 교재와 학습자를 일대일의 대면학습으로 규정지어 왔던 방식에서 컴퓨터와 모델과 전화선을 통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 Mediate Communication:CMC)'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수평적이고 분산적이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다수 대 다수의 쌍무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우리의 대학은 이제 이러한 변화에 대한 탄력적 변신과 탄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학의 커리큘럼은 표출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망라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수요자 중심의 다양화된 입체화 커리큘럼 모델로 지속적인 변신과 개정을 해야 한다. 끊임없는 학과 개발과 새로운 교과목 개발의 사이클 변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칠판과 백묵과 교과서로 점철된 출석식 수업의 전형만이 전부가 아닌 가상 공간내에서의 원격학습과 디지털문화 세대에 맞는 디지털 학습방식의 비전통적 접근이 과감하게 새로운 또 하나의 학습방식으로 자리매김되도록 각고의 변화와 대학의 자성적 자기변혁 개혁이 필요하다.

단상2. 신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대학은 이제 반쪽짜리 똑똑이로서의 구시대의 학력형 인재가 아닌 신시대 학력형 온쪽짜리 똑똑이를 키워 내야 한다. 교육의 성자 페스탈로찌 선생의 3H형 교육을 상기해 본다. 머리(Head)교육 + 가슴(Heart)의 교육 + 손(Hand)의 교육은 왜 아직도 교육의 이념적 구호로만, 또는 교육법상의 선언적인 명제로만 남아 있을 뿐 실제의 교육 속에서 실현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대학이 키워 내야 하는 신인재는 당해 분야의 전문성과 실력은 물론 새로운 사회를 응전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들

을 요청받고 있다. 이른바 골드칼라라는 상징적 개념으로 대변되는 신인재군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그야말로 세롭고 똑똑되는 능력군들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 개발력과 창의력, 정보수집 분석력과 활용력, 고감도 지능과 파워 PQ(IQ+EQ+CQ+SQ+MQ+HQ+LQ ...), 철저한 프로의식과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긍정적 열린 마인드 등이 그 한 예가 된다. 물론 여기에 정보화 소양이나 외국어 능력과 같은 현실적인 능력은 물론, 고차원적 정신능력으로서의 문제해결력과 위기관리력, 상황대처력과 혁신주도력, 미래예견력과 환경변화 적응력, 강인한 정신력 등이 가미된다. 지식화와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능력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이 때 지식화란 정보의 가공, 재구성, 축적, 판단과정(학습)을 거쳐 가치 있고 심화된 지식을 창출하고 창출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비롯한 인간의 제반 활동에 있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보화'란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비롯한 인간의 제반 활동에 있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변화 가능한 생성형의 살아 있는 지식정보와 질로 승부를 거는 지식정보, 문제제기형 탐구형 발견형 지식정보, 파급·활용형 지식정보, 적극적 능동적 지식정보, 다차원적 입체적 지식정보, 개성적인 자기생성적 발견적 지식정보, 주제적이고 자기화된 지식정보를 갖춘 대학가의 신인재 산출이 기대된다. 일반적인 정보나 특정 사실을 아는 'Knowledge-what', 자연과 인간의 정신, 행동 및 사회 변화의 법칙과 원리 등을 파악하는 과학적인 '지식의 유형인 'Knowledge-why',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인 'Knowledge-how', 누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Knowledge-who' 즉, 사물지(事物知)와 사실지(事實知), 방법지(方法知), 정보원지(情報源知) 모두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의 대학가 신인재들은 이러한 지력과 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혹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널리 회자되고 '신지식인'이라는 개념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지식일꾼으로 정의하면서 이들을 '방법지(方法知)'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힘쓰는, 쓰임새를 높이는 실사구시형의 학습인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즉, 기업에서 맡은 바 일이나 자기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기존의 방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이나 쓰임새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동력의 질이 보장된 지식일꾼을 인력개발 차원에서 신지식인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또한 그냥 흘려 보내기에는 우리의 대학가 리포지셔닝을 위한 단상들에 유용한 생각의 물꼬를 제공해 준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의 대학인들은 이러한 신시대가 요구하는 신시대적 능력 변수가 어느 정도 지표에 와 닿아 있을까? 혹은 당해 분야의 전공성조차 비전문가 범주에 맴도는 그런 헛똑똑이는 아닐까? 당해 분야의 전공성은 있으나 상기의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능력은 거의 제로 상태인 무력한 반똑똑이는 아닐까? 교수와 학생 모두의 동시적 자성과 새로운 자리매김을 위한 자아개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리라 본다.

단상3. 깨어있는 대학인들의 '늘 배움 학습결집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대학인 모두의 늘 배움 풍토가 필요하다. 대학은 이제 상호 수평적 교육관계망 속에서 서로 배움을 주고 받는 학습공동체 전형이 되어야 한다. 자기 분야의 최첨단 학술지식정보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필요한 삶의 기본기로서의 알짜 삶의 정보에 이르기까지 배움이 교류·호환되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적 오만과 거품을 뺀 늘 배움의 지혜와 지적 겸허함이 필요하다. 극도의 겸허함은 진정한 자신감의 극대화된 표현이라는 말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대학인 모두의 자기개발과 학문적 탐

구심과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일의 세계에의 준비를 위한 평생학습자로서의 평생학습 마인드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에 있어 더 이상 교육과 학습은 일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 사회구성원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습권이 보장되는, 그럼으로써 교육의 모든 부문이 종횡으로, 수직·수평적으로 연계되고 통합되는 새로운 교육적 시너지 효과 창출의 통합적 평생학습 대학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늘 배움의 대학공동체 속에는 지적 오만과 아집과 편견과 닫힌 마음으로 잠들어 있는 지적 맹아가 존재할 수 없다. 열려진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학적 세계와 전공 분야의 지식정보 신세계를 넘나들며 보다 넓은 지성의 세계 속에서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짧은 시간의 단상들을 깊고 긴 시간의 흐름으로 결집시켜 시너지화할 수 있는 대학인 그리고 이를 통해 마음의 키와 지성의 키가 동시에 훌쩍 커 버린 깨어 있는 참 지성인으로서의 대학인을 기대하며 소고(小考)를 맺는다. **최운실**

최운실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성인고등교육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주리 주립대 성인고등교육학과에서 연구교수를 지냈고,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연구부장과 교육정책연구부장을 거쳐 현재 이주대 교육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서울대, 이화여대, 중앙대 강사와 중앙교육심의회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교육부 장관지문기구인 교육정책심의회 연구위원과 여성특위 남녀차별개선위 실무위원, 교육부 자체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평생교육」이 있으며, 「사회교육방법론」, 「신교육사회학 탐구」의에 100여 편의 연구논문이 있다.